

순천시, 전남 지자체 첫 재활용도움센터 시범 운영

투명페트병·캔·종이팩 등 자원회수 인센티브 생활 속 재활용 문화 확산 거점 역할 '특목'

순천시가 재활용품 선별·회수율을 높이고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및 교육을 위해 5일부터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활용도움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일상 생활에서 다량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 캔 등을 모아 배출 시 현금 포인트,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순환자원 회수로봇 2대, 종이팩 및 건전지 수거 보상사업, 주방·세탁세제 리필샵 등을 운영한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투명 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선별·압축해 보관했다가 가득 찰 경우 사물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관리 업체에 의해 최

종 수거 처리되며, 개당 10원이 지급돼 2000원 이상 적립하면 개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종이팩 및 건전지 수거 보상사업은 종이팩은 1kg 이상, 건전지는 0.5kg 이상 배출 시 무게를 측정해 종량제봉투(20ℓ) 또는 화장지(1롤)로 교환해 주고, 1회용 용기 재사용을 위해 빈 용기를 가져 오면 주방·세탁세제 등으로 담아 갈 수 있도록 리필샵도 별도로 운영한다.

순천시 재활용도움센터는 농협 파머스마켓 건물 도로변 매장에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활용도움센터가 향후 생활 속 재활용 문화 확산 및 교육을 위한 거점역할을



순천시가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활용도움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재활용도움센터 내부. <순천시 제공>

특목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출기업에 코로나 긴급지원 인센티브 확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긴급지원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

공사는 지난 8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선사 인센티브 3억원을 신설한 데 이어, 운영사 대상 부정기선 인센티브 15억원을 신설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총 18억원으로 확대했다.

광양항 기항 부정기선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공컨테이너 및 선박(배에 싣는 짐)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 선복확보 등 지원을 통해 일선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목포해상W쇼' 일정 조정

목포시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으로 '2021 목포해상W쇼' 일정을 조정했다.

해양관광 공연콘텐츠 개발에 불가피한 시연회는 애초 4일에서 6일로 연기했으며 시범공연은 목포문학박물관 개막식이 있는 7일 오후 8시에 첫선을 보인다.

두 공연 모두 불꽃쇼는 생각하고 30분 동안 춤추는 바다분수와 해상무대 공연만 진행한다.

이후 공연 일정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17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시는 애초 목포문학박물관(7~10일), 목포항구 축제(14~17일) 등 행사를 포함해 11월 말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에서 목포해상W쇼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해상W쇼는 목포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춤추는 바다분수와 함께 해상무대 뮤지컬, 불꽃쇼가 한데 어우러진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담양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운영

담양군이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응급 장비 659대를 신규로 설치했으며, 하반기엔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296대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응급호출기, 화재·활동센서 등을 갖춘 응급 장비를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설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담양군 가족행복과(061-380-3124)로 하면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코로나에도 강진 주요 관광지 방문객 늘었다

가우도·영랑생가 등 9월 관광객 3%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가우도, 영랑생가, 고려청자도요지 등 주요 관광지의 9월 방문객은 8만1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증가했다.

강진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는 지난달 2만8000여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15% 늘었다.

지난 8월 개통한 가우도 모노레일은 9월 말까지 총 8100여 명이 이용했다.

개천절 연휴(2~4일) 기간 1553명이 탐승하는 등 개통 50여일 만에 이용객 1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은 지난달까지 731명이 체험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강진만 생태공원,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운동 원림 등 강진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 증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심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고 군은 분석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



개천절 연휴(2~4일) 기간 가우도에 모노레일을 탐승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렸다. <강진군 제공>

면, 소규모, 힐링, 자연친화 등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면서 "소규모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구례군, 은어 수정란 300만개 섬진강 방류

내수면 생태계 복원 주민 소득 증대 도모

구례군이 섬진강 대표 어종인 은어의 수정란 300만개를 섬진강어류생태관 인근에 방류했다.

이번 수정란 방류는 섬진강에 은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섬진강환경어류보호회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채란 수정해 섬진강에 방류했다.

방류한 수정란은 14일이면 부화해 바다로 내려 갔다가 내년 봄에 상류로 돌아온다.

구례군 관계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민물고기연구소 민물고기 방류사업 지원 등으로 7회에 걸쳐 빙어·은어 수정란 1200만개, 연어, 은어, 자라 등 토산어종 72만 마리를 방류했다"며 "앞으로도 섬진강 수산자원 증식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이상의(오른쪽) 함평군수가 새로 창단한 '함평나비 유소년 야구 스포츠클럽'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함평군체육회

유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

함평군과 함평군체육회가 유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에 나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나비 유소년 야구 스포츠클럽'이 최근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함평나비 유소년 야구 스포츠클럽은 지난 4월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진 구성과 정관을 제정했으며, 6월 법인설립 완료 후 야구에 관심 있는 유소년 회원 26명을 확보해 클럽을 운영 중에 있다.

클럽은 '대한체육회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 8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5년간 지원받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유소년 야구부 창단으로 지역 꿈나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레슬링, 골프 등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전문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